



홍국생명 바실레바가 올스타전 전야제 'V-POP 페스티벌'에서 멋진 춤과 노래 실력을 뽐내며 무대를 빛냈다(왼쪽). 러시아캐시 송명근은 올스타전(19일)에서 여자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춤 삼매경에 빠져 있다(가운데). 김혜진(홍국생명)도 뛰어난 춤 솜씨로 전야제를 수놓았다. 김민성 기자 |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erine007

송명근 섹시댄스·마이클 코믹서브...웃음폭탄 광!

프로배구 10번째 올스타전 축제의 현장

女팀 등장한 마이클...강서브 포즈 취하다 약하게 특송명근 강서브 여자선수들 번번이 받아내 팬들 웃음

김혜진·최광희 등 '10년 올스타' 등장 팬 감동 물결 팬들에 기쁨 주려는 선수들 투혼, 이날은 모두 승자!

●역대 올스타전 MVP 명단

년도	남자	여자
2005	이형두(삼성화재)	최광희(KT&G)
2005~2006	이경수(LIG)	정대영(현대건설)
2006~2007	이경수(LIG)	황연주(흥국생명)
2009~2010	가빈(삼성화재)	김민지(GS칼텍스)
2010~2011	가빈(삼성화재)	황연주(현대건설)
2011~2012	김요한(LIG손해보험)	알레시아(IBK기업은행)
2012~2013	문성민(현대캐피탈)	니콜(한국도로공사)
2013~2014	에드가(LIG손해보험)	베피(GS칼텍스)
	여오현(현대캐피탈)	

* 2007~2008시즌은 올스타전 열리지 않았다. 2008~2009시즌은 MVP 뽑지 않았다.



승패의 부담은 없었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날이었다.

프로배구 V리그 10번째 시즌을 기념하는 2013~2014 NH농협 V리그 올스타전이 화려하게 열렸다. 1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올스타전은 연신 웃음이 나오는 흥겨운 잔치였다. 여자선수들의 경기 때 남자선수가 등장했고, 한 팀에 2명의 외국인 선수도 출전했다. 리베로는 그동안 못했던 스파이크 공격을 연신 퍼부었다.

선수들은 저마다 준비했던 세리머니로 관중을 즐겁게 했다. 세트 사이 캐릭터 탈을 쓰고 춤을 췄던 러시아캐시 송명근은 전날 V-POP 페스티벌에서 동료 배후회와 보여줬던 코믹댄스로 만원 관중(5483명)을 가장 기쁘게 했다. 이벤트 경기다 보니 배구가 주는 매력은 덜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았다는 의지가 보였다.

15점 레티포트인 4세트 경기, K스타팀(남자부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LIG손해보험, 여자부 IBK기업은행 현대건설 흥국생명)과 V스타팀(남자부 대한항공 우리카드 한국전력 러시아캐시, 여자부 GS칼텍스 한국도로공사 KGC인삼공사)으로 나눠 남녀 각 2세트를 뽐 뒤 총점합계로 우승팀을 가렸다.

여자선수들끼리 치르는 1세트는 K스타가 15-12로 앞섰다. V스타의 마이클(대한항공)은 1세트 도중 등장해 서브를 넣었다.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를 넣을 듯한 기세였지만 약하게 했다. K스타도 패트릭 에드가(LIG)가 등장했다. 여자 선수들 사이에 서 있는 신장 212cm의 에드가는 정말 엄청난 배터킹 기회가 왔지만 연타로 처리했다.

2세트는 좀더 경기가 집중됐다. V스타 송명근의 등장이 흥미로웠다. 스파이크 서브를 전력으로 넣었지만 K스타 한지현(흥국생명)이 받아냈다. 송명근은 랠리 도중 강 스파이크를 날렸지만 이마저도 여자 선수들이 받아냈다.

스파크 서브 킹&퀸 콘테스트에 이어 벌어진 3,4세트 남자부 경기는 축제를 뜨겁게 만들었다. 장내야나운서는 "K스타가 인터넷서브 분위기인데 V스타는 동네 배구팀 분위기"라고 농담했다. 에드가~레오(삼성화재)~아가메스(현대캐피탈)가 동시에 출전한 것을 빗대서 말했다. 이들을 상대로 전광인(한국전력)이 스파이크를 퍼부자 팬들은 열광했다.

경기 전 벌어진 다양한 이벤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가지였다.

첫 째는 V리그 10주년을 기념해 선정된 10년 올스타의 등장이었다. 10년 올스타 14명(남녀 각 7명)의 면면을 화려

했다. 김혜진 신진석 최태웅 여오현 이선규 문성민 신영석 등 남자 7명과 최광희 정대영 김해란 황연주 양요진(해오리)에서 뛰는 김사나와 김연경은 불참)등 여자 5명이었다. 2005년 V리그 탄생 이후 겨울 코트에서 기쁨과 감동을 줬던 이들은 팬들에게 두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핸드프린팅 행사를 마친 뒤 한국배구연맹(KOVO) 구자춘 총재와 NH농협 박진상 상무가 기념 반지를 줬다.

두 번째 인상적인 이벤트는 올스타 선수들의 등장 때였다. 남녀 선수들이 짝을 이뤄 V리그의 미래를 상징하는 어린이 선수와 함께 등장했다. V리그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항상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한 겨울 오후의 축제는 재미있게 막을 내렸다. 선수들은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가 후반기 리그를 대비한다.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전반기 바닥에 있던 팀들에게도 기회는 있다. 4,5라운드 성적에 따라 볼 배구에 나갈 팀들의 얼굴이 바뀔 사례는 많다. V리그가 후반기에 팬들에게 줄 것은 올스타전 때 보여줬던 그 마음이다. 팬들은 승리를 향한 열정과 함께 자신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는다.

수원 | 김종천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김요한 '시속 122km 서브'...경기장 한때 함성 요동

■스파크 서브 킹·퀸 콘테스트

라인 살짝 벗어나 팬들 탄식...1위는 마이클 퀸은 역대 여자부 100km 첫 돌파 카리나

'스파크 서브 킹, 퀸 콘테스트'는 올스타전의 꽃이라 불린다. 각 구단 대표선수 1명씩만 출전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단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스피드 건으로 속도를 측정해 둘 중 빠른 기록이 인정된다. 강하고 빠른 뿐 아니라 정확도도 견비해야 한다. 코트 밖으로 나가거나 네트에 걸리면 안 된다.

스파크 서브 콘테스트는 국내, 외국인 선수의 자존심 대결로 더 흥미롭다. 강 서브를 즐기는 외국인 선수들이 더 강세를 보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2012~2013시즌까지 7명의 역대 수상자 중 남자는 국내선수 4명, 외국인 선수 3명이었고, 여자부는 국내선수 5명, 외국인 선수 2명이

었다. 남녀부 역대 최고 기록도 2012~2013시즌 현대캐피탈 문성민(122km), 2009~2010시즌 도로공사 오지영(95km)이 보유하고 있었다. 1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시즌 V리그 올스타전, 1,2세트가 끝난 뒤 스파이크 서브 콘테스트가 열렸다. 올 시즌은 외국인 선수들의 잔치였다. 남자부는 대한항공 마이클, 여자부는 IBK기업은행 카리나가 각각 킹과 퀸에 등극했다.

여자부 콘테스트가 먼저 열렸다. 1번 주자는 GS칼텍스 베피. 베피는 시속 94km, 96km의 강 서브를 쏘았다. 초반부터 높은 기록에 사회자가 "남은 선수들은 할 필요가 없다"며 푸념을 냈다. 베피 기세에 놀려 인삼공사 한수지, 현대건설 황연주, 흥국생명 정시영 모두 힘을 못 썼다. 국내 여자선수 중 가장 위력적인 서브를 구사한다는 오지영도 77km에 그쳤다. 마지막에 극적인 역전 쇼가 펼쳐졌다. IBK기업은행 카리나는 첫 번째 시도에 98km로 베피를 훌쩍 뛰어넘더니 이어 100km

의 목직한 서브를 쏘 감탄을 자아냈다. 역대 여자부에서 100km 돌파는 카리나가 처음이다. 카리나는 흥국생명 소속이던 2008~2009시즌에 이어 두 번째 수상했다.

이어 남자부 경기가 벌어졌다. 대한항공 마이클이 기선을 제압했다. 첫 번째 115km, 두 번째는 네트에 걸렸다. 삼성화재 고준우, 현대캐피탈 송준호, 한국전력 서재덕, 러시아캐시 바로티 모두 마이클 기록 근처에도 못 갔다. 우리카드 안준찬이 그나마 114km로 근접했다. 남자부 마지막 후보는 LIG손해보험의 김요한이었다. 잘 생긴 외모와 호쾌한 플레이로 팬이 많은 그답게 경기장이 달아올랐다. 외국인 선수에게 호락호락 내줄 수 없다는 애국심도 작용했다. 김요한은 기대에 부응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목직한 서브를 때려 넣었다. 전광판에 찍힌 숫자는 122km, 작년 문성민과 같은 역대 최고 타이 기록. 순간 경기장은 함성으로 떠나갈 듯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라인을 살짝 벗어났다는 판정이 나왔다. 김요한은 심기일전해 두 번째 서브를 시도했지만 111km에 그쳐 마이클을 넘어지지 못했다. 마이클과 카리나는 각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수원 | 윤택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세리머니왕 송명근 "상금100만원, 커피 한 잔씩만 돌리고 저축"

■올스타전 이모저모

○...올스타전의 숨은 주인공은 러시아캐시 신인 송명근이었다. 송명근은 위밍업 때 '문을 여시오' 노래가 나오자 코트로 달려 나와 댄스를 취 시선을 끌었다. 올스타전 전야제에서 자신이 공연했던 그 곡. 송명근은 올스타전 도중에도 다양한 세리머니로 주목 받았고, 결국 남자부 세리머니 상의 주인공이 됐다. 원래 올스타전 후 공식 기자회견은 남녀 MVP만 참석하는데 인터뷰 요청이 많아 송명근은 특별히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MVP는 못 받을 거 같아 세리머니 상을 노렸는데 생각대로 됐다"며 "저는 아직 젊으니 향후 몇 년 간은 지속적으로 더 재밌는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세리머니 상금 100만원은 "선수단에 커피만 한 잔 돌리고 저금 하겠다"고 재치 있게 답했다. ○...남자부 MVP는 이례적으로 공동 수상이었다. LIG손해보험 에드가와 현대캐피탈 여오현이 6표씩 받았다. 상금 300만원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관심사. KOVO는 특별히 두 선수에게 모두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MVP 부상으로 주어진 한우 세트였다. KOVO 관계자는 난감하다는 듯 "두 선수가 알아서 잘 합의하리라 믿는다"며 말을 아꼈다.

○...GS칼텍스 베피와 IBK기업은행 카리나가 장군, 명군을 주고받았다. 베피는 스파이크 서브 콘테스트에서 선두를 달리다가 마지막 후보로 나온 카리나에게 역전당하며 퀸의 영광을 놓쳤다. 그러나 베피는 올스타전 여자부 MVP를 수상하며 설욕했다. 베피는 "사실 카리나가 튼튼한 어깨를 가지고 있어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생각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두 선수는 이제 정규리그에서 자존심 대결을 이어간다.

편집 | 최재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남들 Lotto 6/45 당첨번호

● 제 581회 Lotto 6/45 당첨번호

당첨번호	2등 보너스 숫자
3 5 14 20 42 44	33
1등 총당첨금 1 4 7 5 6 4 3 6 3 7 6	

*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의 50% 이상입니다. 2등~5등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자수	당첨금(원)	당첨률(내려)
1등 1명	1,844,554,547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39명	63,061,694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1,384명	1,777,028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76,964명	50,000	50,000원
5등 1,321,056명	5,000	5,000원

* 상금 당첨금은 1개당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다시래공제 공제 전)

● 추첨일 : 2014. 1. 18
 ●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11년 7월부터 시행, 422회차(11년 1월 1일 추첨부터 소급 적용)]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99-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로또 구입 유의사항
 ● 로또 구매는 일회권의 유효행이 아니라 개당 오락 및 기부이며, 재·산 불규칙은 도박중독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청소년(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